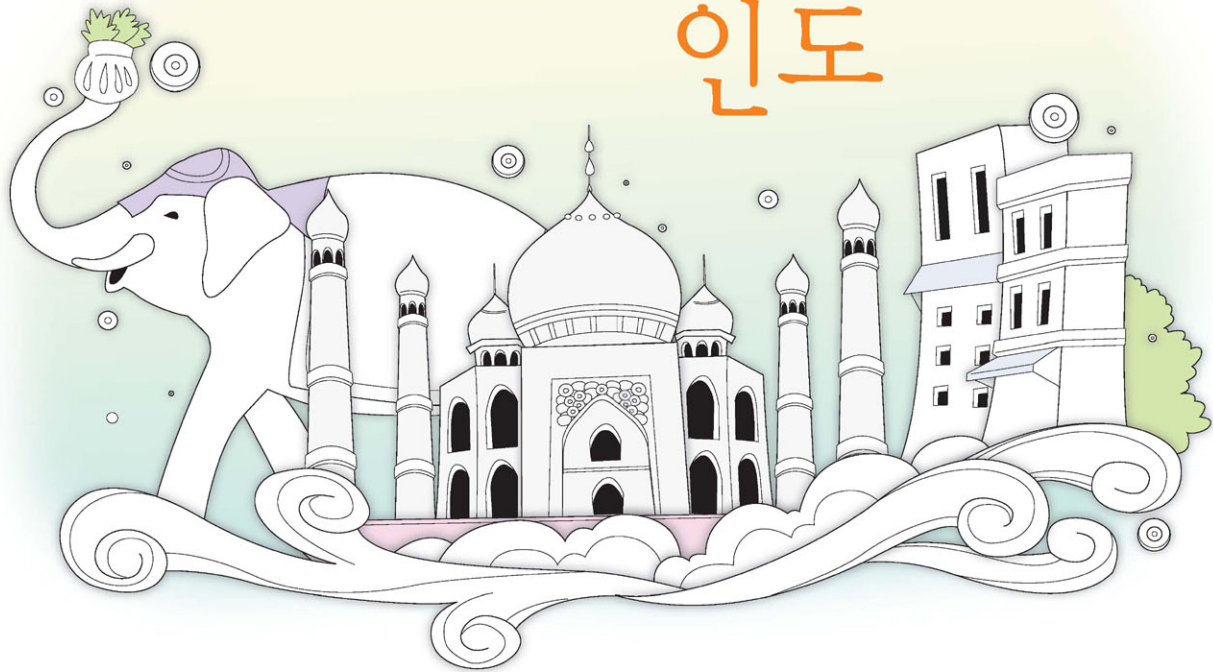


11억이 달리는 인도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존재 하는 나라. 아시아 속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대륙, 인도. 11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인도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손꼽힌다. 0의 개념, 십진법, 원주율, 피타고라스 정리,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 체스까지 흥미로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낸 기초학문의 강국 인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교류 국가로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있다.

○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인도는 크게 2개의 종족으로 구성된다. 먼저 피부가 희고 체구가 큰 아리안 족은 주로 중북부에 거주하고 피부가 검고 체구가 작은 드라비다 족은 주로 남동쪽에 거주한다.

역사적으로 드라비다 족은 BC2500 전 경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고 불리는 고대 선진 문화를 이루었으나 아리안족의 침입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카스트라는 인도의 독특한 신분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인도에 카스트제도가 있냐”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 도시에는 비교적 적고 농촌 지역은 아직도 신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비춰지는 인도는 신분 사회가 없다고 보면 된다.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불교를 중심으로 왕조가 융성을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힌두교가 세력을 얻어 불교는 쇠퇴하고 힌두교가 융성하게 된다. 10세기 이후부터 인도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힌두교가 이슬람교와 같이 불편한 동행을 하게 된다. 한편 근대에 들어서며 남부에서 티푸 술탄의 몰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영국의 지배가 시작된다. 이에 간디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 독립 운동 등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 1947년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되지만 무슬림과 힌두의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된다. 이후 인도는 민주주의 시련과 종교 종파간의 갈등 속에서 저성장의 시련을 겪다가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경제 발전의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를 한다.

가난한 나라 인도

인도는 아직도 3.5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1 달러를 벌지 못하는 극빈곤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건기에 시골 노동자는 하루 노동으로 10루피(250원)를 벌기도 한다. 도시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도시 빈민이 생활을 하며, 공터 등에 천막 같은 형태의 집을 짓고 가족 단위 생활을 한다. 이들은 자연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무엇이 인도를 가난하게 하는가?

인도는 많은 종교가 대립하고 현세의 일보다 때로는 내세의 생애 대하여 강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높은 문맹율은 교육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인도는 서구 국가와의 교류보다는 제3세계의 말형 노릇을 하며 소련과 더 중요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초대 수상인 네루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이 늦어졌다. 복잡한 세제와 공무원의 비능률, 심각한 부패 등 인도를 아직도 가난에서 시름하게 한다. 무엇보다 지식층이 머리로 생각만 한다. 일반인은 과거에 대한 답습만을 한다. 머리와 손이 따로 놀기에 실사구시가 없다.

부자 나라 인도

인도에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 아셀로 미탈의 미탈 회장은 국적은 영국이지만, 인도인으로서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 회장이다. 재산이 250억 달러가 된다. Reliance Industries 회장인 무케쉬 암바니는 뭄바이에 그의 집으로 사용될 건물을 20억 달러를 들여서 짓고 있다. Reliance 그룹은 인도 세수의 10%, 수출의 6%, 그리고 GDP의 3.5%를 차지한다. 그 밖에 수많은 신흥 부자들로는 소프트웨어 기업 위프로의 아짐 프렘지, 석유와 통신 재벌 수닐 미탈 회장 등이 있다.

무엇이 인도를 부자로 만드는가?

일부 해외파를 포함한 지식층과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주요 분야는 선점해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18세기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것처럼 글로벌 경영의 자질을 갖고 있고, 사업 수완 또한 대단하다. 이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는 이름은 없지

만, 신흥 중산층을 형성하여 인도의 구매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인도는 무엇인가?

인도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이다. 초기에 중국 진출을 가능케 했던 조선족도 없다. 외형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동양식도 아니고 서양식도 아니다. 그저 인도식이다. 중국처럼 행정의 효율도 없다. 변화가 천 년을 걸릴 것 같지만 하루 아침에 바뀌는 듯 하기도 하다. 인도 경제는 아직 한국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런데, 구매력은 세계 4~5위 수준이다. 성장도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 인도는 빠르게 되는 것은 별로 없다. 대신 한 번 성공을 하면 그 과실은 오래 간다. 불안한 민주주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중국 리스크 같은 것은 없어 보인다.

누가 인도에 와야 하는가?

한국 기업 중에 신규 시장이 필요하고 소규모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중견기업이 적합할 듯 하다. 인도에서는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서서히 물 스퍼들듯이 젖어 들어가야 한다. 바둑기사 이창호 같은 CEO가 인도시장에서 사업을 하기에 맞을 듯 싶다. 한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발달되어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산업 발달 과정과 조금 다르다.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가능성도 크니 사업가라면 인도 제조업 부분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나마스테 인디아!

INKE 인도 - 방갈로르 지부 / 정현경 의장
+ 91 99 8083 1077 / sean@semi-link.com

인도는 지난 2003년부터 연평균 9% 수준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관세율이 10%까지 인하되었으며 탄탄한 내수와 IT 기반의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따라 인도는 점점 더 전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INKE 방갈로르 지부에서는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방갈로르는 남부의 중심 지역으로 동으로는 첸나이와 연결이 되고 북쪽으로는 하이드라바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부지역은 제조, 물류, IT, 바이오 등이 잘 조화된 지역입니다. 또한 방갈로르는 특히 기후가 좋아 업무 효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인도 엔지니어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INKE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인도에서 수년간 무역업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온 노하우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의 현지 도우미가 되겠습니다.